

가구주 학력이 외식수요에 미치는 효과

김영숙¹ · 전순실^{2*}

¹성화대학 식품계열
²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on Eating-out Demand

Young Sook Kim¹ and Soon Sil Chun^{2*}

¹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Sunghwa College, Jeonnam 527-812, Korea

²Dept. of Food and Nutriti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40-742, Korea

Abstract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s on the eating-out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except fo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period.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eating-out expenditures of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by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We modeled the demand function of eating-out in terms of income and price, examining the responsiveness of eating-out demand to changes in income and price using econometric methods such as regression, rolling regression and impulse response. This paper showed that coefficients of income and price tended to decrease as the income rises in the long-run. Specifically, the higher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is, the smaller the coefficients of income and price are.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also indicated that while price shocks decreased the demand for eating-out, income shocks tended to increase the demand for eating-out in all the educational attainments. Furthermore income shocks were much greater and last longer than price shocks at all educational attainments of household heads.

Key words: eating-out, expenditure pattern,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price

서 론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여가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가패턴의 변화는 관광산업, 특히 외식산업(foodservice industry)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 외식산업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산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외식산업이라는 단어가 해외브랜드 외식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3,4).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1986년 4조 6천억 원에서 1989년 8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1990년 10조 7천억 원에 이르러 1986년에 비해 2.3배의 매출증가를 기록하였다.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 30조 원을 넘어섰으나 외환위기로 1998년에 27조 2천억 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99년에 33조 2천억 원으로 30조 원대를 다시 회복하였으며,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3년 44조 3천억 원

에 달해 1990년에 비해 4.14배로 커졌다.

이와 같은 외식시장 규모확대는 2000년의 음식점업 매출액을 100으로 하여 각 연도별 매출액을 지수로 나타낸 음식점업의 판매지수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음식점업 판매지수는 2000년 음식점업 매출액을 100으로 하여 각 연도별 매출액을 지수로 나타낸 음식점업 판매지수는 1985년 19.8에서 1990년 39.5로 2.7배 증가한 후, 1995년 69.5로 1990년 대비 1.7배 증가, 2000년 100으로 1995년 대비 1.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의 기간에서는 침체와 회복이 반복되는 순환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1년 94.7로 하락한 후 2002년 102.7로 회복하였으나 다시 2003년에 101.5로 침체국면에 들어간 후 2004년에 104.2로 회복을 하고 있다.

외식산업의 발전 추세는 핵가족화의 진전과 더불어 1세대 또는 단독 가구의 증가, 세대 구성원 수의 감소,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탈가족화 및 개인화 현상,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같이 가족 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5). 이외에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가정 외 식자 비중이 점차 증가한 데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6). 이러한 외

*Corresponding author. E-mail: css@sunchon.ac.kr
Phone: 82-61-750-3654. Fax: 82-61-750-3608

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서구화된 식생활이 외식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식산업 성장 그 자체도 외식문화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외식시장의 발전요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소득수준의 증가 없이는 외식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외식비 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구주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7). 그러나 외식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외식업체 이용자에 대한 연구나 외식업체 서비스 품질분석과 같은 외식행동과 외식실태에 집중되어 있으며(8-12), 외식산업과 소득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Kim(4)과 Woo 등(13)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않고 있는 가구주 교육 정도에 따른 외식수요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품목명과 금액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가계부 기입은 연중 내내 이루어지므로 기억에 의존한 지출조사나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의 지출 조사 자료보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가구주 교육계층별 외식비지출 수준과 분포 그리고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 계층을 7단계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거의 영(0)에 가까워 무학을 제외할 수도 있으나 무학 계층이 가구주인 경우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학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하였다.

외식수요추정

실증분석: 교육 계층별 외식 수요를 다음 모형을 도입하여 추정하였다(14-20).

$$expend_t = a_0 + a_1 income_t + a_2 price_t + a_3 imf_t + a_4 five_t \quad (1)$$

여기서 *expend*는 외식에 대한 실질 지출, *price*는 외식가격, *income*는 가계의 소득이다. 지출은 외식에 대한 지출에서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지출이다. 따라서 식 (1)은 외식에 대한 수요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21-27).

충격반응함수: 단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도입하였다. 충격반응함수는 모형 내의 어느 특정 변수에 대하여 1단위 표준편차(one standard deviation)의 충격을 가한 다음 모형 내의 모든 변수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반응하는 결과를 확인하며 변수간의 상호 연관관계 또는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충격반응분석은 균형으로부터 피리의 지속정도, 규모, 그리고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피리의 규모는 각 변수의 반응경로의 최대 폭으로 측정되며, 피리의 지속정도는 정책변수에 1단위 표준편차만큼의 외생적 충격을 가했을 때, 충격을 받는 변수가 추세로 회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측정된다. 충격반응함수는 다음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였다(28).

$$\Delta X_t = \sum_{i=1}^k A_i \Delta X_{t-i} + \sum_{i=1}^k \xi_i \Theta_{t-1} + \nu_t \quad (2)$$

여기서 X_t 는 외식수요, 가계소득, 외식가격의 벡터이다. Θ 에는 오차수정항이 포함되며, ν_t 는 X_t 의 예상하지 못한 변동을 보여주는 충격(impulse) 벡터이다.

통계분석

통계 패키지 RATS(W(Regression Analysis of Time Series) 6.0과 EViews 4.0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외식비의 지출패턴

교육계층별 외식비 지출패턴을 밝히기 전에 먼저 식료품에 대한 지출을 살펴봄으로써 외식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료품 지출구조를 분석하였다.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을 기준으로 무학(no) 21.4%, 초졸(pr) 21.7%, 중졸(mi) 20.3%, 고졸(hi) 16.8%, 전문대졸(ju) 17.4%, 대학교졸(un) 15.8%, 대학원졸(gr) 14.1%로서 가구주가 무학인 경우가 가장 높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낮아져 대학원 졸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1985년, 1990년, 2000년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학의 경우 34.0%, 27.8%, 22.5%, 초졸의 경우 32.5%, 25.5%, 21.6%, 중졸의 경우 30.2%, 24.0%, 21.8%, 고졸의 경우 25.4%, 22.1%, 20.2%, 전문대졸의 경우 24.4%, 20.7%, 18.0%, 대학교졸의 경우 23.0%, 20.8%, 17.2%, 대학원졸의 경우 21.8%, 21.1%, 14.0%로 가계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식료품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식료품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에 비해 1995년에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4년과 1995년은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식료품 지출과 소득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는 1990년대와 같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식료품 지출패턴과 달리 외식의 경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부터 1989년까지는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순으로 외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1989년까지는 교육

Table 1. Ratios of food expenditures to income by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Year	Unschool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Junio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college
1985	34.02	32.46	30.18	25.43	24.41	23.01	21.81
1986	33.79	30.72	28.76	24.70	22.84	21.53	19.53
1987	30.92	28.65	27.54	21.88	22.70	21.40	18.28
1988	29.50	27.91	26.52	22.35	22.40	21.21	19.88
1989	27.12	26.20	24.13	19.40	21.73	20.54	20.37
1990	27.82	25.54	23.98	22.08	20.70	20.80	21.10
1991	28.91	23.85	22.32	19.53	21.50	20.00	19.65
1992	26.87	22.15	21.47	17.48	19.32	18.86	19.00
1993	25.68	21.46	20.56	18.38	19.21	18.60	17.52
1994	27.03	20.94	21.18	17.80	19.67	18.23	16.41
1995	24.06	20.58	20.64	16.20	18.03	17.69	16.11
1996	24.74	20.86	20.43	17.25	17.29	17.24	15.85
1997	25.94	20.17	19.68	14.87	17.44	16.88	15.85
1998	21.20	18.96	19.63	14.75	16.81	15.52	13.89
1999	24.49	20.84	21.00	17.70	18.78	16.91	14.48
2000	22.49	21.60	21.76	20.24	18.04	17.24	14.01
2001	20.33	20.24	20.68	17.86	17.30	15.92	13.61
2002	21.87	20.56	19.85	16.68	16.55	15.65	13.28
2003	20.34	21.23	20.41	17.76	17.31	15.74	12.91
2004	21.40	21.72	20.26	16.79	17.37	15.83	14.05

source: <http://kosis.nso.go.kr> (29).

Table 2. Ratios of foodservice expenditure to income by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Year	Unschool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Junio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college
1985	1.35	1.47	1.90	2.21	2.42	2.58	2.82
1986	1.41	1.79	2.06	2.46	2.71	2.82	3.14
1987	2.22	2.57	3.02	3.20	3.39	3.30	3.36
1988	2.69	3.04	3.10	3.49	3.96	3.75	3.89
1989	3.93	3.98	4.03	4.49	5.12	4.93	5.50
1990	5.20	4.42	4.57	4.80	4.77	5.06	6.12
1991	5.72	4.57	4.51	4.88	5.08	5.17	5.35
1992	6.11	4.80	4.58	5.13	4.40	5.18	5.98
1993	6.83	5.17	5.22	5.46	4.95	5.77	5.97
1994	8.66	5.83	6.12	5.80	6.05	5.94	5.55
1995	7.85	6.41	6.44	6.03	6.36	6.36	5.70
1996	9.38	7.20	6.52	6.47	6.16	6.49	5.88
1997	8.16	7.84	6.94	7.09	6.81	6.69	6.15
1998	5.24	5.74	6.01	5.52	6.44	5.87	5.38
1999	8.00	7.09	7.24	6.90	7.59	6.74	5.99
2000	8.75	8.41	8.60	7.86	7.69	7.61	6.35
2001	8.18	8.36	8.68	7.83	8.11	7.16	6.35
2002	9.70	8.71	8.93	7.76	7.92	7.16	5.77
2003	8.65	9.52	9.71	8.84	8.62	7.54	6.19
2004	8.74	10.02	9.78	9.26	8.73	7.81	6.96

source: <http://kosis.nso.go.kr> (29).

계층이 높을수록 외식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계층에서는 80년대와 같이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순으로 외식비의 비중이 크나 고졸 이하의 교육계층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학계층에서 외식비 비중이 2002년까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부터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외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문대졸의 가구주에서 가장 높고 대졸, 대학원졸 가구주 순으로 낮아졌다. 외식문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보편화되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대학원졸에서는 낮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고졸 이하의 교육계층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무학, 초졸, 중졸 계층의 비중이 대졸 이상의 계층보다 컸다. 이러한 사실은 외식문화가 보편화·대중화되고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외식비가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정도가 낮은 계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4년에 들어 더욱 뚜렷해져 초졸이 10%로 가장 높고, 교육계층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져 대학원 졸업이 6.96%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증 분석

외식가격은 Table 3과 같은 품목들의 가격에 가중치를 곱한 후 평균(가중평균)하여 구하였다.

imf는 외환위기 더미변수로서 1997년 4분기와 1998년 1분기에 해당하며, five는 주5일 근무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2003년부터 적용하였다. 이러한 더미변수는 외식수요가 외환위기와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모든 자료는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구했으며, 분석은 1985년 1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였다(29). 식 (1)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외식가격은 무학과 대학원 졸업을 제외한 교육계층에서 음의 부호를 가져 외식가격 상승이 외식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학의 경우 외식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더 이상 감축할 외식수요가 없는 것으로, 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가장 높은 소득수준이기 때문에 외식가격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외식가격의 계수가 고졸 -0.659, 전문대졸 -0.711, 대학교졸 -0.671, 대학원졸 -0.348로 고졸 이상의 교육계층에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낮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었다.

소득증가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져 외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졸 이상의 교육계층에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또한 모든 교육계층에서 소득계수가

가격계수보다 커서 가격보다 소득이 외식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졸과 고졸 이외의 교육계층에서는 소득계수가 가격계수보다 훨씬 커서 소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imf)는 1997년 4분기부터 1998년 1분기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계수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음의 부호를 보여 대부분의 교육계층 외식수요를 감소시켰으나 대학원 졸업 가구주에게는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5일 근무제(five)는 2003년 1분기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부호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양의 부호를 가져 주5일 근무제와 외식수요가 정함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무학, 초졸, 중졸 계층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유의하게 외식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고졸 이상의 교육계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6은 외식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식수요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무학의 경우 소득계수는 2002년 1분기 1.5952에서 2005년 2분기에 1.3424로, 가격계수는 -0.3892에서 -0.0940으로, 초졸의 경우 소득계수는 2.2546에서 1.9270으로, 가격계수는 -1.7700에서 -1.1773으로, 대졸의 경우 소득계수는 1.4802에서 1.2165로, 가격계수는 -0.8164에서 -0.4944로, 대학원졸의 경우 소득계수는 1.0701에서 0.9108로, 가격계수는 -0.4530에서 -0.2664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고졸과 전문대졸의 경우 소득과 가격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고졸의 경우 소득계수와 가격계수가 2003년 2분기부터 2004년 4분기까지, 전문대졸의 경우 소득계수와 가격계수가 2003년 1분기부터 2004년 4분기까지 증가하였다.

Table 3. Calculation of foodservice price

Seoleongtang (2.3) ¹⁾	Naengmyon (1.8)	Bibimbap (2.4)	Galbitang (2.5)	Samgyetang (1.8)
Kimchijjigebaekban (2.6)	Doenjangjjigebaekban (3.2)	Dwaejigalbi (4.3)	Samgyeopsal (2.4)	Sogalbi (2.6)
Jajangmyon (2.4)	Jjamppong (2.2)	Tangsuyuk (1.9)	Fried rice (1.9)	Hamburg steak (1.7)
Pork cutlet (1.8)	Beef cutlet (1.7)	Steak (1.6)	School lunch fee (6.6)	Assorted sushi (2.1)
Hoedeopbap (2.1)	Lunch package (2.4)	Meal in the refectory (6.5)	Fried chicken (3.5)	Hamburger (3.4)
Pizza (2.8)	Kalguksu (2.6)	Chinese noodle (2.6)	Kimbap (2.6)	Coffee (2.9)
Korean tea (2.9)	Draft ber (2.6)	Beer (eating out) (4.5)	Soju (eating out) (3.9)	

¹⁾Weight.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foodservice functions

Education	Income	Price	imf ²⁾	five ³⁾	R ²	F
Unschool	1.558** (8.128) ¹⁾	-0.345 ^{NS} (-1.090)	-0.606** (-3.608)	0.311** (3.569)	0.943	174.1
Primary school	2.221** (9.859)	-1.715** (-4.567)	-0.329** (-3.299)	0.175** (3.232)	0.974	395.0
Middle school	1.574** (8.434)	-0.776* (-2.542)	-0.231* (-2.461)	0.114* (2.539)	0.975	414.2
High school	2.021** (12.46)	-1.659** (-6.475)	-0.244** (-3.724)	0.046 (1.360)	0.983	627.2
Junior college	1.408** (7.535)	-0.711** (-2.673)	-0.257* (-2.590)	0.020 (0.377)	0.951	204.7
University	1.361** (9.156)	-0.671** (-3.359)	-0.268** (-3.912)	0.070 (1.642)	0.967	309.4
Graduate college	0.979** (3.958)	-0.348 (-1.019)	-0.226 (-1.535)	0.045 (0.531)	0.831	52.12

¹⁾t-statistics are in parentheses. ²⁾foreign exchange crisis. ³⁾five-day workweek.

*p<0.05, **p<0.01.

Table 5. Rolling regression: income elasticities of foodservice

Period	Unschool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Junio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college
2002:1	1.5952	2.2546	1.5635	2.0722	1.4465	1.4802	1.0701
2002:2	1.5809	2.2532	1.5791	2.0557	1.4514	1.4242	1.0531
2002:3	1.5730	2.2549	1.5888	2.0551	1.4358	1.4156	0.9951
2002:4	1.5746	2.2543	1.5855	2.0502	1.4320	1.3757	0.9900
2003:1	1.5536	2.2368	1.5802	2.0328	1.4336	1.3399	0.9757
2003:2	1.5381	2.2199	1.5901	2.0490	1.4481	1.3008	0.9674
2003:3	1.4742	2.1583	1.5915	2.0657	1.4647	1.2988	0.9329
2003:4	1.4155	2.0809	1.5863	2.0766	1.4713	1.2954	0.9125
2004:1	1.4149	2.0740	1.5934	2.0808	1.4753	1.2693	0.9014
2004:2	1.3840	2.0386	1.5926	2.0949	1.4739	1.2639	0.9150
2004:3	1.3662	2.0159	1.5946	2.1015	1.4775	1.2542	0.9113
2004:4	1.3683	1.9486	1.5908	2.1088	1.4828	1.2499	0.9285
2005:1	1.3698	1.9458	1.5906	2.0900	1.4693	1.2293	0.9145
2005:2	1.3424	1.9270	1.5786	2.0939	1.4408	1.2165	0.9108

Table 6. Rolling regression: price elasticities of foodservice

Period	Unschool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Junio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college
2002:1	-0.3892	-1.7700	-0.7659	-1.7340	-0.7625	-0.8164	-0.4530
2002:2	-0.3721	-1.7684	-0.7866	-1.7104	-0.7685	-0.7478	-0.4351
2002:3	-0.3624	-1.7705	-0.7982	-1.7096	-0.7482	-0.7375	-0.3672
2002:4	-0.3717	-1.7691	-0.7938	-1.7036	-0.7436	-0.6897	-0.3631
2003:1	-0.3450	-1.7359	-0.7810	-1.6788	-0.7456	-0.6463	-0.3467
2003:2	-0.3268	-1.7026	-0.7909	-1.7000	-0.7631	-0.5979	-0.3369
2003:3	-0.2368	-1.5912	-0.7875	-1.7232	-0.7838	-0.5954	-0.2944
2003:4	-0.1576	-1.4552	-0.7737	-1.7375	-0.7922	-0.5914	-0.2692
2004:1	-0.1663	-1.4404	-0.7823	-1.7435	-0.7972	-0.5594	-0.2558
2004:2	-0.1276	-1.3757	-0.7764	-1.7619	-0.7955	-0.5528	-0.2720
2004:3	-0.1054	-1.3322	-0.7777	-1.7712	-0.7998	-0.5409	-0.2677
2004:4	-0.1177	-1.2154	-0.7688	-1.7807	-0.8059	-0.5357	-0.2878
2005:1	-0.1312	-1.2103	-0.7687	-1.7537	-0.7889	-0.5101	-0.2708
2005:2	-0.0940	-1.1773	-0.7439	-1.7589	-0.7518	-0.4944	-0.2664

그러나 중졸, 고졸, 전문대졸의 경우 소득계수와 가격계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다른 교육계층에 비해 상당히 작다. 무학, 초졸, 대졸, 대학원졸의 경우 소득계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0.2528, 0.3279, 0.2637, 0.1687인데 비해 중졸, 고졸, 전문대졸은 0.0311, 0.0761, 0.0508에 불과하였다. 가격계수 역시 무학, 초졸, 대졸, 대학원졸의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0.2952, 0.5932, 0.3220, 0.1972인데 비해 중졸, 고졸, 전문대졸은 0.0543, 0.1018, 0.0623으로 상당히 작았다.

이 결과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Fig. 1, 2). 소득계수의 변이계수는 무학, 초졸, 대학졸, 대학원졸의 경우 6.594, 6.074, 6.120, 5.755, 가격계수의 변이계수는 50.04, 15.31, 15.96, 20.26인데 비해, 중졸, 고졸, 전문대졸의 경우 소득의 변이계수는 0.529, 1.099, 1.235, 가격의 변이계수는 1.786, 1.74, 2.891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의 변이계수가 다른 교육계층의 변이계수보다 크게 작았다. 이는 사실은 중졸, 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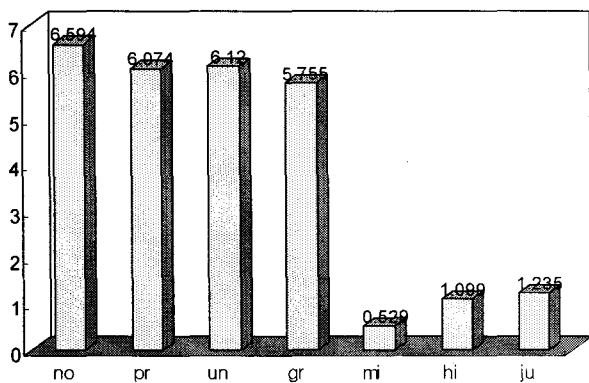


Fig. 1. Coefficient of variation: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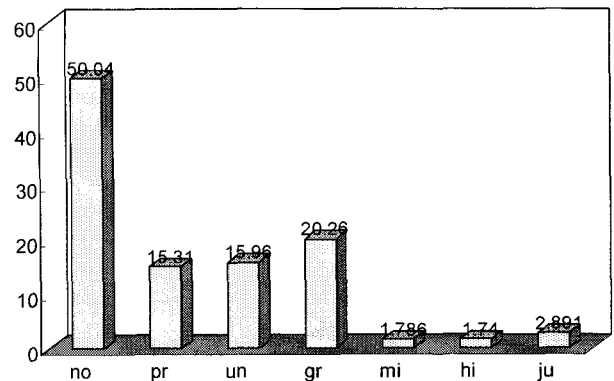


Fig. 2. Coefficient of variation: price.

Table 7. Impulse-response functions

	Step	Unschool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Junio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college
Price	1	-0.01846	-0.00159	-0.00293	-0.00237	-0.00136	-0.00191	-0.00525
	2	-0.00546	-0.00080	-0.00469	-0.00225	-0.00122	-0.00107	-0.00310
	3	-0.00433	0.00015	-0.00561	-0.00155	-0.00053	-0.00013	-0.00179
	4	-0.00152	0.00093	-0.00597	-0.00080	0.00026	0.00061	-0.00101
	5	-0.00035	0.00149	-0.00597	-0.00015	0.00103	0.00117	-0.00056
	6	0.00056	0.00188	-0.00576	0.00038	0.00170	0.00159	-0.00029
	7	0.00107	0.00214	-0.00545	0.00080	0.00225	0.00188	-0.00013
Income	1	0.07253	0.01466	0.01130	0.00887	0.01011	0.01106	0.02098
	2	0.02657	0.01406	0.01630	0.01025	0.01272	0.01074	0.01265
	3	0.02376	0.01122	0.01736	0.00960	0.01224	0.00925	0.00752
	4	0.01412	0.00861	0.01617	0.00853	0.01066	0.00791	0.00449
	5	0.01013	0.00657	0.01389	0.00749	0.00883	0.00682	0.00269
	6	0.00688	0.00503	0.01128	0.00657	0.00708	0.00595	0.00162
	7	0.00496	0.00387	0.00877	0.00580	0.00554	0.00525	0.00099

전문졸의 소득계수와 가격계수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작아 가격과 소득계수의 영향력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충격반응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교육계층에서 가격충격은 외식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비해 소득충격은 외식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가격충격은 소득충격에 비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식수요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도 대단히 작았다. 소득충격과 가격충격에 대한 1분기 후 반응은 무학의 경우 0.0725, 0.0184, 초졸의 경우 0.0147, 0.0016, 대학원졸업의 경우 0.0209, 0.0052로 외식수요가 소득충격에 대해 훨씬 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득충격에 대한 반응이 가격충격에 대한 반응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초졸의 경우 소득충격에 대해 충격 1단계의 반응 0.01466이 충격 2단계에서도 0.01406으로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데 비해 가격충격에 대해서는 충격 2단계까지만 음의 효과를 보인 후 사라졌다. 전문졸의 경우에서도 가격충격은 3단계에서 -0.00053이라는 대단히 작은 반응을 보인 후 3단계에서 효과가 사라지는 데 비해 소득충격은 충격 1단계 0.01011, 2단계 0.0172, 3단계 0.01224로 상당한 크기의 충격이 유지되었다. 중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충격이 비교적 오랫동안 음의 효과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충격 1단계에서 소득충격에 대한 반응이 0.0113인 데 비해 가격충격에 대한 반응은 -0.00293에 불과하여 소득충격이 가격충격의 3.9배에 달하며, 충격 3단계에서는 소득충격은 0.01763, 가격충격은 -0.00561임으로써 소득충격이 가격충격의 3.1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격충격이 미치는 감소효과를 소득충격이 주는 증가효과가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는 것과 가격보다는 소득변수에 의해 외식수요가 크게 좌우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총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외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식료품에 대한 교육계층별 지출패턴을 조사하여 외식에 대한 지출구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

에서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구주가 무학일 경우 가장 높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낮아져 대학원 졸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식문화가 보편화·대중화되어 낮은 교육계층에는 외식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외식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외식 가격상승은 무학과 대학원졸을 제외한 교육계층에서 외식수요를 감소시키고, 소득증가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육계층에서 소득계수가 가격계수보다 커서 가격보다 소득이 외식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간에 따른 외식 수요 패턴을 보기 위한 전향적 이동회귀는 소득과 가격의 영향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외식의 단기적 특성을 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를 도입한 결과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가격충격은 외식수요를 감소시키며, 소득충격은 외식수요를 증가시키나, 가격충격은 소득충격에 비해 외식수요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도 대단히 작았다.

문 헌

1. Kim YG, Yu JL. 2004. The change and challenge of foodservice industry in the age of 5-day work. *J Foodservice Management* 7: 175-192.
2. Park KY, Shin JY. 1998. A study on the concepts of meals and its basic requirements in the eating-out industry. *J Foodservice Management* 1: 179-197.
3. Han KS, Seo KM, Pak HN, Hong SY. 2004. Issues of Korean restaurant industry by content analysis of food yearly statistics. *J Korean Soc Food Culture* 19: 313-325.
4. Kim DR. 2004.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growth on the foodservice industry. *J Foodservice Management* 7: 165-184.
5. Jo HY, Kim SA. 2004.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patterns of youth: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different regions. *J Korean Soc Food Culture* 19: 336-347.
6. Jeong KH. 2003. Differences in selection attributes for

- customers' motives and choice behavior between family and business level dining-out: a cross-national study for Korea and Japan. *J Tourism Sciences* 26: 259-274.
7. Kim YS, Mo SW. 2004.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perceptions on the eating-out. *J Korean Soc Food Culture* 19: 630-639.
 8. Yu JE, Chang MH. 2005. Switching barriers affecting the repurchase intention of fast food customers despite perceived health risks. *J Foodservice Management* 8: 45-63.
 9. Kim JY, Song HJ, Park SS. 2005. Segmentation of the home meal replacement market by lifestyle: the case of S department store in Gang-nam, Seoul. *J Foodservice Management* 8: 137-154.
 10. Jun, JH, Bang JS. 2005. Customer retention following a complain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J Foodservice Management* 8: 155-171.
 11. Lee JS, Choi SH. 2001. Relation between negative word-of-mouth communication on choice of restaurant and purchasing behavior in the customer of food service. *J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3: 9-24.
 12. Kim SJ, Shin JY, Kim EH. 2004.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in food service industry-focusing the Korean restaurants. *J Foodservice Management* 7: 67-82.
 13. Woo MH, Lee JH, Chung IJ. 2003. The influence of macro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 on the food service industries. *J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5: 79-98.
 14. John YC, Mankiw NG. 1991. The response of consumption to income: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35: 723-756.
 15. Aguiar M, Hurst E. 2004. Consumption vs. expenditure. NBER Working Paper 10307.
 16. Blundell R, Browning M, Meghir C. 1994. Consumer demand and the life cycle allocation of household expenditur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1: 57-80.
 17. Blundell R, Preston I. 1998. Consumption inequality and income uncertainty. *Quarterly J Economics* 113: 603-640.
 18. Carroll C, Kimball M. 1996. On the concavit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Econometrica* 64: 981-992.
 19. Easaw JZ, Garratt D, Heravi SM. 2005. Does consumer sentiment accurately forecast UK household consumption? Are there any comparisons to be made with the US? *J Macroeconomics* 27: 517-532.
 20. Flavin M. 1981. The adjustment of consumption to changing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J Political Economy* 89: 974-1009.
 21. Hall RE. 1993. Macro theory and the recession of 1990-91.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3: 275-279.
 22. Hur S, Sung T. 2003. The impact of lifting liquidity constraints on the distributions of consumption, assets and debts. *KDI Policy Study* 2003-03.
 23. Campbell JY, Mankiw NG. 1990. Permanent income, current income, and consumption. *J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8: 265-278.
 24. Hayashi F. 1982.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estimation and testing by instrumental variable. *J Political Economy* 90: 895-916.
 25. Jappelli T, Papano M. 1999. The welfare effects of liquidity constraints. *Oxford Economic Papers* 51: 410-430.
 26. Skinner J. 1988. Risky income, life cycle consumption, and precautionary savings. *J Monetary Economics* 22: 237-255.
 27. Zeldes SP. 1989. Optimal consumption with stochastic income: Derivation from certainty equivalence. *Quarterly J Economics* 104: 275-298.
 28. Sims CA. 1980. Macroeconomics and reality. *Econometrica* 48: 1-48.
 29. <http://kosis.nso.go.kr>

(2005년 8월 18일 접수; 2005년 10월 28일 채택)